

---

#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(안) Q&A

---

2021. 8. 23.

교육부

◆ **학점제 단계적 이행 취지**

- 1.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번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? ..... 1
- 2. 2025년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2023~24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차이는? ..... 2

◆ **교육과정**

- 3. 2023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량을 192학점으로 줄이는 이유는? ..... 3
- 4. 1학점의 수업량도 단계적 이행 기간에 변화가 있는지? ..... 4
- 5. 학생 진로를 고1때부터 조기 결정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음 ..... 4
- 6.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전문교과가 과도하게 개설되는 것은 아닌지? .... 5

◆ **학생평가 및 책임교육**

- 7.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학교 내신 평가에서도 변화가 있는지? ..... 5
- 8.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고 하는데, 미이수제 도입과 다른 것인지? ..... 6
- 9.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책임교육 강화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데, 이에 대한 지원은? ..... 7

◆ **교원**

- 10.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의 지원 방안은? ..... 8
- 11. 6개 교원단체와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, 어떤 사항을 논의하게 되는지? ..... 9

◆ **지역 간 격차 해소**

- 12.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교 격차가 심화될 우려는 없는지?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? ..... 10

◆ **대입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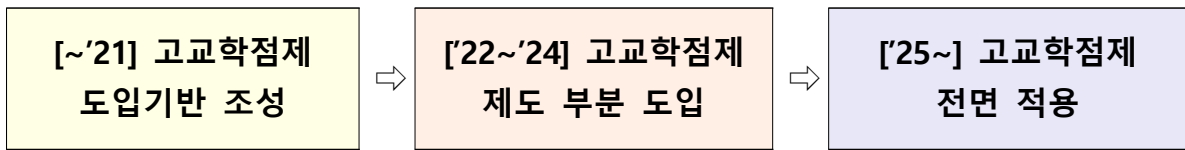
- 13.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따른 대입의 변화도 이루어지는지? ..... 11
- 14.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대입의 기본 방향은? ..... 11

◆ 학점제 단계적 이행 취지

1. 고교학점제는 2025년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번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?

-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종합적 혁신을 도모하는 과제로, 2025년 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가는 것으로 로드맵을 설정한 바 있음

<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('18.8, 고교교육 혁신 방향) >



-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연구·선도학교의 성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가 향후 3년간 2025년 전면 도입을 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음

2. 2025년에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와 2023~24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차이는?

- 2022 개정 교육과정, 미이수제\*, 선택과목 성취평가제\*\* 등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요소는 당초 계획대로 2025학년도 고1부터 적용될 예정
  - \* 2025년부터 과목출석률(2/3이상), 학업성취율(40% 이상) 충족해야 학점 이수
  - \*\* 2025년부터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은 성취도 기재(석차9등급 미 기재)
- 2023학년도 고1부터는 고등학교의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고, 총 이수학점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감축되어, 단계적 이행을 통한 학점제 도입 준비가 가능할 것임

◆ **교육과정**

3. 2023년부터 고등학교의 수업량을 192학점으로 줄이는 이유는?

- 현행 204단위 체제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제약이 많고, 과중한 수업량으로 교사 부담이 큰 상황
  - 이에, 수업량 적정화\*를 통해 학교가 고교학점제 안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
    - \* 국가별 고등학교 수업시간(3년 환산 기준) : 미국(캘리포니아주) 2,625시간, 캐나다(온타리오주) 2,475시간, 중국 1,944시간, 일본 2,158시간, 핀란드 2,137시간 / 우리나라 2,720시간(192학점)
- 수업량 적정화에 따른 여유 시간\*은 진로·학업설계 상담, 최소 학업 성취수준 보장 지도, 선택과목 편성에 따른 공장 시간 등으로 활용 가능
  - \* (204단위) 주당 34시간 수업(34시간×6학기), 1시간 여유 발생(7교시×5일=35시간 기준) → (192학점) 주당 32시간 수업(32시간×6학기), 3시간의 여유 발생으로 유연한 시간표 운영 가능

#### 4. 1학점의 수업량도 단계적 이행 기간에 변화가 있는지?

- 2023년 입학생부터 고교 수업량의 기준인 '단위'가 '학점'으로 전환되나,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('23~'24) 1학점 수업량은 현행 50분 수업 17(16+1) 체제\*를 유지하게 됨

\* 50분 수업 17회 중 1회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(2020학년도부터 적용 중)

-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학년도 고1부터는 1학점이 50분 수업 16회로 바뀌게 됨

<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>

	현재	단계적 이행		전면 적용
	'21	'22	'23~'24	'25~
수업량 기준	단위		학점	학점
1학점 수업량	50분 17(16+1)회		50분 17(16+1)회	50분 16회
총 이수학점 (이수시간)	204단위 (2,890시간)		192학점 (2,720시간)	192학점 (2,560시간)
교과·창체 비중	교과 180 창체 24		교과 174 창체 18	교과 174 창체 18

#### 5.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를 고1부터 조기 결정해야 하는 건 아닌지?

-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과목 선택 전 반드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, 자신의 적성, 관심 분야를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사의 지도 하에 과목을 선택해 나간다는 의미임
- 학생들은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며, 이를 바탕으로 진로·학업설계를 하게 됨
- 이후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진로를 구체화하게 되는 것임

## 6.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전문교과가 과도하게 개설되는 것은 아닌지?

- 교육과정 총론 지침 상 일반고(자율고 포함)는 교육과정을 보통 교과(일반선택과목, 진로선택과목) 중심으로 편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교과 과목을 개설할 수 있음

### ※ 고등학교 교과 구분

- 보통교과 : 국어, 수학, 영어, 한국사, 사회, 과학, 체육, 예술, 기술가정, 제2외국어, 한문, 교양
- 전문교과 : 전문교과Ⅰ(과학, 체육, 예술, 외국어, 국제 계열에 관한 과목), 전문교과Ⅱ(국가 직무능력표준에 따른 직업계열 과목)

-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보통교과 내의 과목이라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 선택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으며,

- 전문교과의 경우 학생 수요, 과목 위계 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선에서 개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(학교 내 개설이 어려울 경우 공동교육과정 활용)

※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과목의 96%가 보통교과임

## ◆ 학생평가 및 책임교육

## 7.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학교 내신 평가에서도 변화가 있는지?

- 모든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등 내신 평가 제도가 바뀌는 시점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로,
- '22~'24년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에는 진로선택과목에만 성취평가제(석차 9등급 미산출)가 적용되는 등 현행 방식이 유지됨

8.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실시된다고 하는데, 미이수제 도입과 다른 것인지?

- 미이수(I, Incomplete의 약자)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시에 실시되는 것으로,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률(수업횟수 2/3 이상 출석)과 학업성취율(40% 이상) 충족 여부에 따라 이수·미이수가 결정됨
  - 미이수제는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, 학교 현장의 충분한 준비와 시·도교육청의 면밀한 대비가 중요함
- 이를 위해 '22~'24년 단계적 이행 기간 동안 공통과목 국·수·영에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실시\*함으로써 미이수제를 준비하는 것임
  - \* '22: 연구·선도학교(공통 과제로 적용) → '23~'24: 모든 고교 적용(공통과목 국수영)
  -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미도달 예방 지도, 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 등 일련의 과정을 미이수제와 유사하게 수행하나, 실제로 미이수 처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미이수제와 차이가 있음

	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( '23~'24)	미이수 제도 ( '25~)
기준	최소 학업성취수준 40%	과목 이수 기준 (과목 출석률 2/3 이상, 학업성취율 40% 이상)
학기중	미도달 예방 지도	미이수 예방 지도
학기말	미도달 학생 보충 지도	미이수 학생 보충이수
성적	성취도 E (미이수 미적용)	보충이수 참여 시 성취도 E 부여 (미참여 시 미이수 I 부여)

- 현장 지원을 위하여 최소학업성취수준 진술문, 예시문항을 마련하고, 관련 교원 역량 강화, 보충 프로그램 마련 등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임



9.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 책임교육 강화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데, 이에 대한 지원은?

-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('23년 고1~), 미이수제('25년 고1~)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함
-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, 미이수 지도 등에 대한 교사의 수업 시수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, 필요 시 강사 채용, 계절학기 활용 등 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임
  - ※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관련 현황 및 운영 방안 개발 연구 중('21, KICE)
  - ※ (서울 OO고 사례)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에 예비교원(사범대 대학생, 대학원생)을 활용
- 2022년 교원수급 계획 수립 시 미이수 지도 등 고교학점제에서의 교원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며
- 시도별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고교학점제 운영비를 반영('21.하) 함으로써 모든 고교가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임
  - ※ 고교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의 경우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비 지원 중

◆ 교원

10.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의 지원 방안은?

-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교과 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해오고 있으며, 특히 2022년에는 연구·선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공립학교 중등교원을 452명 추가 배정할 예정으로,
  - '25년 학점제 전면 적용 전까지 연구·선도학교\*를 중심으로 교원 지원을 확대해나갈 예정임
  - \* 2024년까지 전체 일반계고(일반고, 자공고)를 고교학점제 연구·선도학교로 지정·운영 예정
-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대되고, 업무 전문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'22년까지 1,600명 양성하고,
  -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('21년 22개)를 확대하여 공동교육과정 운영 관리로 인한 교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\*할 예정임
  - \* 교원 증원 배치, 기술 전담인력 운영 지원 등
  - 수강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, '23년부터는 나이스와 연계하여 과목 수요조사, 수강신청, 시간표 편성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임

11. 6개 교원단체와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하는데, 어떤 사항을 논의하게 되는지?

- 고교학점제 교원단체 협의체는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, 6개 교원단체\*에서 추천한 고등학교 교사 6명과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임
  - \* 교사노동조합연맹, 새로운학교네트워크, 실천교육교사모임, 전국교직원노동조합, 좋은교사운동,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
- 협의체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, 전문성 지원 방안 등 학점제 안착에 필요한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며,
  - 학점제 도입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도 논의하여 발굴할 예정임

< 주요 논의 과제(예시) >

- (업무 경감 방안) 고교학점제 추진 관련 교원 업무 실태 분석, 고교학점제에서의 시수 산정 원칙 등(예시 :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, 다과목 지도 교사 등 시수 감축, 공강지도 시간의 시수 인정), 강사 채용 관련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 방안
- (전문성 제고 지원) 다과목 지도, 진로·학업설계 등 교원 전문성 제고 지원 방안
- (제도 개선사항 발굴) 학점제에서의 담임제 개선, 교과 순회교사 제도 개선안 등

◆ 지역 간 격차 해소

12. 고교학점제 도입 시 학교 격차가 심화될 우려는 없는지?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?

-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학교별 여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
  - 이에 고등학교 교육의 장을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여 학교 간 교육자원 공유 체제 구축, 지역 대학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음
    - ※ 고교학점제 선도지구('21, 34개 지구) : 일반고-특성화고-특목고 등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, 대학 및 연구기관, 기업 등 지역기관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
    - 앞으로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와 같은 지역단위의 학점제 운영 모델을 확산하고,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지역의 학점제 운영을 위한 여건 개선\*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
      - \* 교육소외지역 여건 개선('21, 전체 도지역) : 교·강사 인력풀 구축, ICT 인프라 구축 등
- 한편, 농어촌·소규모 학교에서도 최소한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교사가 확보되도록 교과 순회교사제, 중·고 교원 겸임 등을 활용한 교원 배치 지원을 검토해 나갈 것이며
  - ※ (예) 최소 학생 수 300명 학교만큼의 교사 수가 확보되도록 배치 지원
- 온·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,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확대 등을 통해 여건이 열악한 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임

◆ 대입

13.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따른 대입의 변화도 이루어지는지?

-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기간이라도 교과목 구조, 과목별 내용 등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대입 역시 현행 체제가 유지됨
-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따른 미래형 대입제도는 정책연구,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4년 발표 예정임

14.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대입의 기본 방향은?

- 2028학년도 적용 예정인 대입제도는 2022 국가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,
  - 대입 전형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등 핵심역량을 신장하고자 하는 미래교육 전환의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관련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
  - 특히, 비판적 사고력 함양 등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,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설계될 학점제형 과목 구조와 연계하여 대입 방향을 마련해나갈 것임